

서비스업의 기술혁신과 협력네트워크 특성 분석

최지선(과학기술정책연구원, choijs@stepi.re.kr)

후기 산업사회를 지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들어서면서 서비스업,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이와 함께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진입이 당면 과제로 등장하면서 산업 전 부문에 걸쳐 혁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강조 및 이론적·경험적 연구와 비교할 때, 서비스 부문의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기술혁신이 핵심인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의 혁신은 흔히 비기술혁신인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에서 비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서비스업에서도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기술혁신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질적 경쟁력에 적신호라 평가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기술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체의 기술혁신 속성을 협력네트워크의 특성이라는 매개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상대적으로 기술적 역량 및 기업 규모가 작은 서비스업의 기술혁신 과정에서 외부 협력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여 보다 빠르고 경쟁력 있는 혁신을 이루어내는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국내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2,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2003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서비스 부문」의 결과 자료가 분석에 사용된다. 서비스업 기술혁신의 일반 현황, 서비스업 기술혁신에서 협력네트워크가 갖는 중요성, 그리고 협력네트워크의 질적 특성 등에 관한 분석이 수행된다. 특히, 기업 규모·산업·지역적 특성이 기술혁신 및 기술혁신과정에서 외부 협력의 활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심층 분석이 수행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대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